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 - 어느 국문학자의 보물 찾기

학술정보운영과 김진호, 이준영, 최민지

1. 들어가는 말

2023년은 방중현 선생¹⁾의 일사 문고 설치(1953년)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연구자의 소장 문헌을 기증받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길을 개척하여 온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2022년 4월, 본교 국어국문학과 권영민 명예교수께서 중앙도서관에 평생에 걸쳐 수집한 근대문헌과 집안에 전승되어 온 고문헌 400여 점을 포함한 도합 1,140종 1,654점의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중앙도서관에서는 기증도서 목록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설치 지침」 제3조(설치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고문헌자료실 내에 문고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표 1 권영민 교수 기증 문헌 개요

고문헌(15세기~1909년) 136종 400점	
경부經部	『중용언해』등 23종 54점
사부史部	『국조보감』등 31종 140점
자부子部	『주자어류』등 16종 90점
집부集部	『초사집주』등 66종 116점
근대문헌(1910~1953년) 178종 190점	
시	『백록담』등 27종 28점
소설, 희곡	『무정』등 72종 72점
수필, 평론	『문학의 논리』등 50종 50점
신문, 잡지 외	『개벽』등 29종 40점
현대문헌(1954년~현재) 826종 1,064점	
총류	51종 105점
철학·심리학·종교	34종 34점
사회과학	45종 48점
언어	15종 15점
과학·기술	5종 5점
예술	21종 24점
문학	606종 745점
역사·지리	49종 88점
총 1,140종 1,654점	

1) 방중현(1905~1952): 국어학자. 본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문리과대학장 역임

2023년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권영민 명예교수의 연구실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으로 기증 도서를 이관하였으며, 이후 중앙도서관에서 3개월간 기증 도서에 대한 문헌학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희귀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설치 70주년을 기념하며, 권영민 명예교수의 주요 자료를 학내 구성원에게 널리 알리고 우수한 중앙도서관 장서의 사회적 홍보 및 공유를 확대하고자 권영민 문고 설치와 이를 기념하는 전시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1 고문헌자료실내에 설치된 권영민 문고의 모습(근현대문헌)



그림 2 권영민 문고(고문헌)

2.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 개막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은 약 3개월간의 준비 끝에 2023년 10월 25일부터 2학기 종강 시점인 12월 15일까지 개최하였다. 본 전시의 연출과 홍보를 위해 전시 패널 및 네임택, 포스터 및 리플릿, 초청장, 현수막 등을 제작하였으며, 출품 원본 도서는 올해 새로이 제작한 진열장 내에 조습제(調濕劑)와 함께 안전하게 비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념전의 기획 및 출품작 선별, 각종 전시 원고의 작성 및 최종 검수는 김수진 학예연구관이 담당하였고, 전시 연출은 김진호 담당관과 김은정 선임주무관이 분담하였다. 아울러 자료 조사와 패널 원고 및 해제의 작성은 이준영, 최민지 연구원이 분담하였고, 출품작 보존처리는 강지은 주무관이 담당하였다.



그림 3 권영민 문고 전시 기념전 전시장 전경(관정마루)



그림 4 <어느 국문학자의 보물 찾기> 전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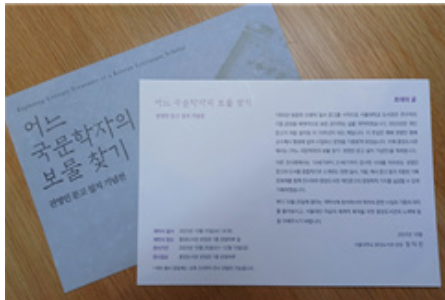


그림 5 전시 초청장



그림 6 전시 리플릿

2023년 10월 25일,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에 위치한 관정마루에서 <어느 국문학자의 보물 찾기 (Exploring Literary Treasure of a Korean Literature Scholar)> 라는 제목으로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의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개막식의 식순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 장 소: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
- 참석자: 권영민 명예교수, 교육부총장, 인문대학장, 중앙도서관장, 내빈 및 교수, 직원, 학생 등 50여명

○ 식순

- 주요 내빈 소개 권수일 행정지원팀장
- 축사 김성규 교육부총장
- 축사 강창우 인문대학장
- 감사패 증정 장덕진 중앙도서관장
- 기증 소감 권영민 명예교수
-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 1세션 전시 설명 김수진 학예연구관
- 2·3세션 전시 설명 이준영·최민지 연구원
- 리셉션



그림 7 김성규 교육부총장 축사



그림 8 강창우 인문대학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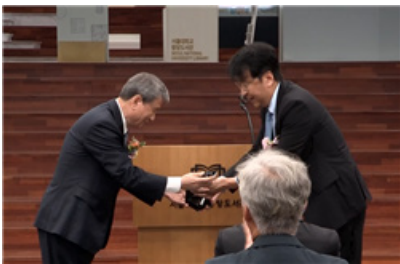


그림 9 감사패 증정(장덕진 중앙도서관장)



그림 10 권영민 명예교수 기증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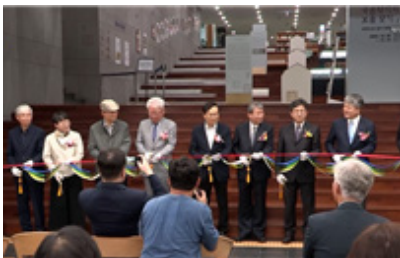


그림 11 개막식 테이프 커팅



그림 12 1세션 해설(김수진 학예연구관)



그림 13 2세션 해설(이준영 연구원)



그림 14 3세션 해설(최민지 연구원)

개막식에 참석한 권영민 명예교수는 “많은 텍스트가 원본 대신 전산화된 이미지로 보도록 바뀐 시대에 실물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한국 문화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번 전시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2024년 달력을 제작,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께 증정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본 개막 행사의 전 과정은 중앙도서관 학술행사 동영상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촬영하였으며, 고문헌자료실 기획 영상 콘텐츠인 ‘샤복샤복’ 시리즈의 하나로 권영민 교수 편을 제작하여 YouTube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림 15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 2024년 달력



그림 16 ‘샤복샤복’ 권영민 교수 편 (YouTube 공개)

학내외 언론에서도 본 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진행하였으며, 본 지면에 해당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지난달 25일 중앙도서관 관장관 1층과 2층 사이 관장아루에서 <관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이 열렸다. 이 행사는 관영민 명예교수(국어국문학과)의 소장 문헌 기증으로 진행된 새로운 개인 문고 설치와 중앙도서관 개인 문고 설치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7 전시 개막 보도 기사 #1(대학신문)



그림 18 전시 개막 보도 기사 #2(YTN 연합뉴스)

3. <어느 국문학자의 보물 찾기> 전시 둘러보기

본 전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메인 세션 및 갤러리월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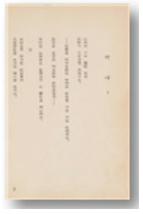
표 3 <어느 국문학자의 보물찾기> 전시 구성 개요

세션	주요 내용
메인 세션 1. 70년 역사의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그리고 권영민 문고	개인문고 설치 70주년을 맞아, 1953년 설치된 일사 문고부터 올해 새롭게 설치된 권영민 문고까지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대표 서적을 선별해 전시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서양과 중국의 고문헌을 망라하며, 신문, 잡지, 책 등 출판 방식도 다양한 여러 문헌이 출품된다. 특히 일사 문고본 등록문화재 『대한매일신보』, 상백 문고본 세계기록유산 『연설대해』가 최초로 출품된다.
메인 세션 2. 충남 세거 안동 권문의 장서 (권영민 문고의 고문헌)	권영민 문고의 고문헌(~1909년) 400점 중 문헌학적 가치가 높은 13점의 자료를 선별해 전시한다. 경사자집을 아우르는 권영민 고문헌은 조선시대 지방 사대부가문의 보편적 장서 구성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15세기 중국에서 간행한 「책학연의」에서부터 17세기 초 금속활자(훈련도감자)로 출판된 「초사집주」 등 희귀본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메인 세션 3. 권영민 문고 속 보물 책 (권영민 문고의 근대문헌)	권영민 문고의 근대문헌(1910~1953) 190점 중 60점이 전시된다. 갈래별로 나누어 주요 시, 소설, 평론의 초판본을 살펴보고, 북한 문학도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다수의 문헌이 기증된 여덟 작가, 이광수·염상섭·박태원·최남선·현진건·김동인·이태준·이기영에 대해서는 이들 문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김영일의 사』(1923), 『만세전』(1924) 등을 비롯한 이들 문헌들의 다수가 초판본이며, 근·현대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손꼽히는 작가와 문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대문헌의 보고로서의 권영민 문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갤러리월 개인문고 속 기록문화재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에는 12종의 국보급 문화재가 존재한다. 국보 1종, 보물 6종, 등록문화재 2종, 세계기록유산 3종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기증문고와 차별화되며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높은 가치를 선명히 보여준다. 이 점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진 자료만이 아니라 문화재 등재서 및 인증서 등도 함께 보여준다.

가. 1세션: 70년 역사의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그리고 권영민 문고

1세션은 권영민 문고와 그밖에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대표 문헌을 선별 전시한 코너로, 그중 주요 전시자료를 소개한다.

표 4 1세션 주요 전시자료 소개

서명	사진	내용
신편고금사문유취 新編古今事文類聚 (1493, 일사 문고본)		중국 고대에서 송나라 시기까지의 온갖 사실과 문물을 모아 분류한 유서類書이다. 최초 편찬자 축목祝穆은 주희의 제자이며 성리학의 입장에서 편찬한 책이기에 조선시대 성종이 간행을 명하여 당대 신하들에게 반사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S. Thomae Aquinatis Svmma totivs theologiae (1569, 신용하 문고본)		중세 유럽의 스콜라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 「신학대전」을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출판한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유럽의 신학 체계를 정립한 최고의 권위자로서, 「신학대전」은 가톨릭 신학 교리의 주요 근거서이자 종합서로 일컬어진다. 본서는 1569년에 출판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희귀본이다.
정지용 정지용 시집 (1935, 가람 문고본)		정지용의 첫 시집으로, 「바다 1」 등 총 87편의 시와 함께 정지용의 산문 2편과 편집자인 박용철의 발문이 수록되었다. 본 문헌은 정지용 시인이 가람 이병기 선생에게 직접 서명해 증정한 것이다. 이병기와 정지용은 휘문고보 교사로 함께 재직하면서 오랜 시간 문학적 교류를 나누었다. 『가람일기』에는 1935년 11월 22일에 『정지용 시집』 출판을 기념해 축연을 벌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지용 백록담 (1941, 권영민 문고본)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으로, 25편의 시와 8편의 산문을 수록하였다. 표제작 「백록담」은 9편으로 구성된 연작시로, 백록담 등반의 기록이자 정신적 상승의 과정을 묘사한다. 나무와 사슴, 나비가 아름답게 그려진 표지 그림은 화가 길진섭의 솜씨이다.
대한매일신보 (1905, 일사 문고본)		스위스의 영웅 빌헬름 텔에 관한 역사 전기소설이다. 박은식이 실러의 희곡 『빌헬름 텔』의 중역본을 번안하여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것을 국한문 혼용체로 간행하였다. 역사적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민족의 애국심과 저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기증 문헌은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서명	사진	내용
<p>박은식 서사건국지 (1907, 권영민 문고본)</p>		<p>스위스의 영웅 빌헬름 텔에 관한 역사 전기소설이다. 박은식이 실러의 희곡 『빌헬름 텔』의 중역본을 번안하여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것을 국한문 혼용체로 간행하였다. 역사적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민족의 애국심과 저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기증 문헌은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p>
<p>이광수 무정 (1924, 권영민 문고본)</p>		<p>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주제나 문체 등에서 근대 장편소설의 시작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며 광복 전까지 8번 간행되었는데, 기증 문헌은 흥문당 서점에서 간행한 제5판본으로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p>
<p>이광수 무정 (1953, 백사 문고본)</p>		<p>이광수의 장편소설로, 문체와 주제, 소설 기법 등의 차원에서 한국 근대 장편소설의 시작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정』은 191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후 1918년 신문관에서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되었는데, 그 후에도 여러 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본 문헌은 1953년 박문사에서 발행한 것이다.</p>
<p>연설대해 演說大海 (1909, 상백 문고본)</p>		<p>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연설문 모음집으로, 독립운동가 김광제(1866-1920)가 대구 광문사에서 연설한 「국채보상발기회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로 분류되어 2017년 10월 30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p>
<p>문학신문 (1956, 권영민 문고본)</p>		<p>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당시 주 1회 타블로이드 판 4면 순국문으로 발간되었다. 기증된 문헌은 창간호부터 1960년 12월 27일까지 보존한 국내 유일의 자료이며, 전후 북한의 중요 문예정책과 문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문헌은 1956년 12월 6일자의 창간호이다. 권영민 교수가 본인의 기증 문헌 중 가장 귀한 것으로 손꼽은 자료이다. * 권영민 교수는 한국문학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 오랜 시간 북한 문학 연구에 매진하였다.</p>

나. 2세션: 충남 세거 안동 권문의 장서(권영민 문고의 고문헌)

이번에 기증된 권영민 문고 중 136종 400점의 고문헌을 살펴보면 전근대 지방 사대부 가문의 장서가 한국 근현대의 무수한 격랑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구한 세월 이 문헌을 정성껏 간직한 그 마음이 보령의 한 소년을 한국학의 대가로 성장시켰던 원동력이 아니었는지 생각하며 2세션에 전시된 고문헌 중 주요 자료를 소개한다.

표 5 2세션 주요 전시자료 소개

서명	사진	내용
근사록 (17세기 초)		송나라 때 편찬된 성리학의 지침서이다. 1175년에 주희와 여조겸이 주돈이·정호·정아·장재 등 네 명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 편집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필독서 중 하나이다.
중용언해, 대학언해 (1810)		『중용』과 『대학』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서인 사서四書의 하나이다. 조선 시대 사서 언해본은 선조 때 처음 간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경서의 우리말 번역이 나와서 널리 출판되었다는 것은 경서 연구가 축적되었다는 것, 유학과 성리학을 널리 교육하기에 편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사집주 (17세기 초)		전국 시대 초나라의 문인인 굴원 등의 노래를 모은 책인 『초사』에, 송나라 주희가 여러 사람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문장 학습의 교범으로 널리 읽혔다. 한산이씨 이경전李慶全(1567-1644)의 장서인이 있다. 간행 시기 및 보존 상태 등으로 볼 때 가치가 충분한 귀중본이다.
성리대전서 (18세기)		성리학자들의 학설을 주제별로 모은 책이다. 명나라 때 호광 등이 영락제의 명을 받아 1415년에 편찬하였다. 조선에서는 1427년에 처음 간행된 이후 꾸준히 간행되고 보급되었다. 방대한 분량으로 성리학의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묵은시고 (1626)		고려 말의 문신·학자이자 충신으로 유명한 묵은 이색(1328-1396)의 시집이다. 전질은 35권 15책인데, 그중 14권 5책이 기증되었다. 이색은 한산이씨의 중시조로서, 그의 시집과 문집은 후손들에 의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서명	사진	내용
<p>자치통감강목 (18세기)</p>		<p>송나라 주희(1130-1200)가 사마광(1019-1086)의 『자치통감』에 의거하여 편집한 역사서이다. 조선시대 여러 차례 간행되어 왕세자 교육에 사용되었고, 반가에서는 선비들이 중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이 활용되었다.</p>
<p>책학연의 (15세기)</p>		<p>책학, 즉 과거 공부를 위한 유서類書이다. 명나라 초기인 15세기에 편찬되어 간행된 것으로, 국내 유일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역사적 근거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p>
<p>찬주분류두시 (18세기)</p>		<p>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집에, 원나라 학자 고초방高楚芳이 여러 사람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문헌이다. 중국의 시성詩聖인 두보의 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필독서였으므로 여러 종류의 판본과 선집들이 수 세기에 걸쳐 유통되었다.</p>
<p>국조보감 (1782)</p>		<p>역대 조선 국왕의 치적 중에서 통치의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골라서 수록한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세조 때 최초로 간행된 뒤 몇 차례 걸쳐 증보되었는데, 권영민 문고본은 1782년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것이다.</p>

다. 3세션: 권영민 문고 속 보물 책(권영민 문고의 근대문헌)

권영민 교수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책들을 수집하였다. 그에게 헌책방 산책은 예상치 못한 책을 만나는 보물 찾기와도 같았다. “헌책방 순례는 언제나 인내심이 필요했다. 시간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하는 책을 처음부터 정해 놓을 필요는 없었다. 어쩌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책이 엉뚱한 책방의 책 무더기 속에 끼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권영민, 2017)

3세션, 권영민 문고의 주요 근대문헌 자료를 소개한다.

표 6 3세션 주요 전시자료 소개

서명	사진	내용
조명희 김영일의 사 (1923)		단편소설 「낙동강」 등을 지은 조명희의 창작 희곡이다. 당시 동경 유학생들의 사상적 갈등과 가난, 인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21년 극예술협회의 조선 순회공연에서 큰 호응을 얻어 희곡집으로 간행되었다. 권영민 문고본은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염상섭 만세전 (1924)		염상섭의 장편소설로, 동경 유학생의 귀국 과정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본서는 고려공사 초판본으로, 현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이후 일부가 개작되어 1948년 수선사에서 재간행되었다.
나도향 청춘 (1927)		단편소설 「벵어리 삼룡이」 등을 지은 나도향의 중편소설로, 그의 사후 간행되었다. 애정없는 정혼을 비판하며 물질적 욕구와 욕망에서 갈등하는 남녀를 그리고 있다. 나도향의 낭만적 경향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박태원 천변풍경 (1938)		박태원의 장편소설로, 청계천의 일 년 풍경을 70여 명에 달하는 다양한 인물 군상을 통해 그려내었다. 여러 소설적 기법이 나타나며, 정해진 주인공이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당시 '리얼리즘의 확장'과 '파노라마적 트리비얼리즘'이라는 평을 동시에 받았다.
김기림 문학개론 (1946)		김기림의 평문집으로, 10개의 글을 통해 문학에 대해 논하고 있다. 현대 문학의 제문제로 '문학의 소유관계, 입장의 문제, 유산정리, 민족문학' 등을 손꼽았다. '세계문학의 분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문학 공부를 위한 추천 도서들도 소개하였다.

서명	사진	내용
<p>조지훈 시의 원리 (1953)</p>		<p>청록파 조지훈이 쓴 시론서로, '시의 우주', '시의 인식', '시의 가치', '시의 감상'의 4부로 구성되었다. 시의 창조적 해설과 유기적 통일성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p>
<p>박종화 흑방비곡 (1924)</p>		<p>박종화의 첫 시집으로, 초기 시 55편을 5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서문에서 박영희는 이 시집에 대해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애무하는 인도적 비곡을 노래하였다'고 평하였다. 당대의 염세적이고 감상적인 풍조가 반영된 시집이다.</p>
<p>김기림 태양의 풍속 (1939)</p>		<p>김기림의 두 번째 시집으로, 1930년에서 1934년 사이에 쓴 91편의 시를 6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그는 서문에서 '신선하고 활발하며 대담하고 명랑, 건강한 태양의 풍속을 배우자'고 말하고 있다. 화가 김만형이 표지 장정을 맡았다.</p>
<p>이육사 육사시집 (1956)</p>		<p>이육사의 유고 시집으로, 그의 사촌 동생 이원조가 시 20편을 엮어 1946년 서울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본 문헌은 이후의 범조사 재판본이다. 신석초·김광균·오장환·이용악의 공동 서문과 이원조의 발문이 있다. 해당 시집은 이후에도 여러 번 증보판이 간행되었다.</p>
<p>김기림 태양의 풍속 (1939)</p>		<p>현진건의 기행문으로, 동아일보가 기획한 단군 유적 순례 참여 기록을 『동아일보』에 연재한 후 이를 간행한 것이다. 단군굴, 단군릉, 단군대, 제천단 등을 다니며, 저자는 민족의 유적이 잘 보존되고 있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p>
<p>김기림 태양의 풍속 (1939)</p>		<p>이용악의 세 번째 시집으로, 29편의 시가 8부로 나뉘어 실렸다. 그의 월북 이후 남한에서 신석정·김광현·유정 등이 1939년부터 해방 후까지 발표된 시들을 묶어 간행한 것이다. 표제작 「오랑캐꽃」의 한 구절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데, 이 시는 유이민의 망국적 비애와 궁핍화를 형상화하고 있다.</p>

라. 갤러리월: 개인문고 속 기록문화재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속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4종(국보 1종, 보물 7종, 등록문화재 2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4종, 규장각 장기대출 자료 포함. 2023년 12월 기준)이 개인문고 속 문헌이다. 본 전시에 출품되었던 문화재 지정서·인증서와 전시 패널 일부를 소개한다.



그림 19 국보 지정서
가람 문고본 『송조표전총류』



그림 20 보물 지정서
가람 문고본 『대불정여래일신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연해)』



그림 21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일사 문고본 『한성순보』



그림 2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상백 문고본 『연설대해』 및 일사 문고본 『대한매일신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책의 가치를 안다...
 후학을 위해 희귀한 문헌을 널리 개방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람문고로 기증하게 된 것”
 - 가람 이병기 선생 「역학신문」 인터뷰 -



「가람장서 4천여 권 기증」, 대학신문, 1963년 5월 30일

그림 23 갤러리월 전시 패널 #1



국보 제150호
 송조표의총류

송나라 신하들이 황제에게 올린 각종 표문**과 전령** 등에서 뛰어난 글씨를 뽑아 편찬한 책이다. 1463년에 총 3권으로 편찬된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자**로 간행된 것으로, 고려와 조선 초기 활자 인쇄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림 24 갤러리월 중 국보 소개



보물 제71호
 대불정여래일인수증요의제반야만행수능엄경(언해)

불교의 대승적 경전인 『능엄경』을 한글로 언해한 책이다. 세조대 언해되어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는데, 본서는 1462년에 조 7권에 84권에서 일제**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이다.

그림 25 갤러리월 중 보물 소개

4. 맺음말

개인문고 설치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성사된 권영민 문고의 설치 및 기념전은 중앙도서관 개인문고가 한국문학사의 문헌학적 집대성이라고 이를 만한 정점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권영민 문고는 가람(이병기), 심약(이승녕) 문고의 전통을 이어 1994년 이후 중단된 고문헌 기증의 흐름을 되살렸으며, 스승인 백사(전광용) 문고에 버금가는 희귀한 근대문헌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학술로 쌓아 올린 문헌의 금자탑’, 중앙도서관 개인문고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문헌의 가치와 그 문헌을 수집하고 기증하는 학자의 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은 현재 라키비움²⁾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 전달 매체의 진화에 따라 책을 보관하고 대출 서비스하던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더하여, 더 많은 이용자가 찾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본교 박물관과 기록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라키비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한 이번 전시와 더불어 앞으로 전시와 연구 기능 등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울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계승현 (2023. 10. 23.). ‘무정’5판, ‘만세전’초판…국문학자 권영민 문고본 한자리에.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3070100004>
- 권영민 (1989).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 권영민 (2002). 평양에 핀 진달래꽃: 북한문학사 속의 김소월. 통일문학.
- 권영민 (2017).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 해냄.
- 권영민 외 (1990).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김재우 (2023. 11. 5.). 대학자의 일생이 담긴 국문학 문헌의 보고. 대학신문. 출처: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3>
- 서울대도서관 (2023). [샤북사북] 문학은 나의 삶, 문학 그 자체를 사랑하라.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4dfMe0CN6WY>
- 서울대도서관 (2024).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 어느 국문학자의 보물 찾기 개막식 현장.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7VZUN-5h3I>
- 위키백과 (2023). 라키비움.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라키비움>

2)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말한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모두 가진 복합문화공간이다(위키백과, 2023).